

## 부모교육 연구 동향 분석 (2020-2024)

### - CiteSpace 시각화 분석 -

션쓰(SHEN SI)\* · 정희정\*\*

본 연구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의 부모교육 연구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학술적 발전 방향과 미래 연구 주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WOS CC) 데이터베이스에서 "parent education", "parental involvement", "family-school partnership", "parenting style" 등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총 1241편의 관련 문헌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문헌 계량 분석 및 시각화 도구인 CiteSpace 6.4.R1을 활용하여 연도별 문헌 분포, 키워드 클러스터 분석, 키워드 버스트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교육 연구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긴급 양육 연구의 급증 이후, 심층 메커니즘 탐구와 디지털 양육 기술의 윤리적 성찰로 초점이 전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고빈도 키워드 클러스터 분석에서는 학업 성취, 정신 건강, 사회 적응 등 다차원적 영역에서 부모교육의 핵심 기능을 입증하였으며, 윤리성과 실용성의 균형 탐구가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술 융합 양육 전략, 다문화 양육 연구, 청소년 정신 건강 및 젠더 민감성 반영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제언하며, 학제 간 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부모교육 분야의 질적 성장과 실질적인 사회적 기여를 이끌어낼 것을 기대한다.

**주제어** : 부모교육, 연구 동향, CiteSpace, 시각화 분석, 양육 패러다임 변화

논문 투고일 : 2025. 10. 31.      최종심사일 : 2025. 11. 25.      게재확정일 : 2026. 03. 30.

\*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교육학전공 박사과정

\*\* 백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코칭심리전공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Chung, Hee-Jung, Professor, Coaching Psychology, GraduateSchool of Education, BaekSeok University, 501, Mokyangdong BLD. Bangbae-ro 69, Seocho-gu, Seoul, Korea, 06695. E-Mail: hjchung@bu.ac.kr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현대 사회는 급변하는 교육 환경과 기술 발전이라는 복합적인 변화에 직면하였고 2020년 이후 시작된 COVID-19 팬데믹은 가정교육 생태계에 전혀 없는 구조적 변혁을 가져왔으며 언택트(untact) 시대의 도래, 디지털 교육의 일상화, 원격 학습의 확대는 부모의 역할과 자녀 교육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며,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교육 방식의 전환을 넘어, 가정 내 교육적 기능의 재정의, 부모-자녀 관계의 새로운 양상, 미디어 리터러시를 포함한 부모의 역량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부모교육은 더 이상 자녀 양육의 보조적인 수단이 아니라, 자녀의 전인적 성장 발달을 위한 필수적인 토대이자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나아가 부모교육은 사회 전체의 교육적 역량을 제고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부모교육의 사회적, 교육적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학술 연구 분야에서도 부모교육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부모교육의 효과, 프로그램 개발, 부모-자녀 상호작용, 양육 방식의 문화적 차이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부모교육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진행되어 왔다. 첫째는 아동 발달 이론과 교육 심리학적 관점에서 부모의 양육 태도,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아동의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이다(김민희, 2022; 도미향, 김은영, 2024; 조유진, 2013). 둘째는 사회복지학, 상담학적 관점에서 ADHD, 발달 지연, 정서 행동 문제 등의 특정 문제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연구 또는 부모코칭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양적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김기주, 2024; 김민경, 2004; 문소희 외, 2021; 박성의, 황희탁, 2019; 박태경, 박재연, 2017; 안명현, 한유진, 2013), 부모교육 및 상담 현장의 실재를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질적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김정현, 조한익, 2020; 김한나, 정은희, 2013; 니지영, 2016; 오은영, 최새은, 2019).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특정 이론적 프레임워크나 제한된 연구 대상을 기반으로 하여, 전체적인 부모교육 연구의 흐름과 핵심 동향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급격한 사회 변화와 함께 부모교육 연구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심화되는 과정에서 연구의 핵심 주제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부모교육 연구동향에 대한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교육 연구동향 연구들은 국내를 중심으로 특정 시기나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추거나 내용분석,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하여 분석하여 전체적인 연구 동향을 조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김민희, 2022; 김영환, 이승민, 강두봉, 2017; 김혜경, 2014; 나지영, 2016; 이완희, 최양미, 2009; 이경주, 조영애, 최경혜, 한유진, 2020; 이미나, 김의규, 2017; 황민선, 2015). 특히 최근 5년간(2020-2024)은 앞서 언급한 팬데믹과 디지털 전환 외에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 심화, 아동 청소년 정신 건강 문제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변수가 가정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부모교육 연구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시기이므로 이 기간의 전 세계 연구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학술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부모교육 정책 수립 및 교육 현장 실천에 있어서도 시의적절한 통찰과 실질적인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최근 5년간 부모교육 연구의 지형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부모교육 연구 동향을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CiteSpace 시각화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CiteSpace는 학술 문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연구 동향, 핵심 주제, 영향력 있는 저자 및 기관을 시각적으로 탐색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도구로, 이 소프트웨어는 문헌 계량 분석(Literature Quantitative Analysis)을 지원하며, 데이터 수집 및 정제, 키워드 추출, 지표 생성, 시각화, 분석 등의 단계를 거쳐 연구 동향을 다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논문 간 인용 관계를 분석하여 논문의 영향력과 연구 동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연구자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그래프로 생성하여 학문 분야 내 핵심 연구자와 기관을 파악할 수 있다. CiteSpace가 제공하는 클러스터 분석, 키워드 시간 그래프, 키워드 버스트 분석 등의 기능은 특정 연구 주제의 주요 추세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어떤 키워드들이 일정 기간 동안 급증하는지 등을 정량적이고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부모교육 연구의 핵심 동향과 패러다임 전환을 명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화 분석은 방대한 양의 문헌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해석하여, 복합적인 연구 흐름과 숨겨진 패턴을 발견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의 부모교육 연구 동향을 CiteSpace

시각화 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모교육 연구의 학술적 발전 방향과 미래 연구 주제를 제안하는 데 있다. 연구의 신뢰성과 포괄성을 확보하기 위해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WOS CC)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으며, “parent education”, “parental involvement”, “family-school partnership”, “parenting style” 등의 주요 키워드를 통해 1,241편의 관련 문헌을 수집하였다. WOS CC는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 및 동료 검토 품질과 같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통해 학문적 권위를 보장하므로, 본 연구에서 선정한 문헌 데이터는 학술적 정확성, 신뢰성, 그리고 대표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교육 분야의 연구자들이 급변하는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융합 연구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학술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이며 또한,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부모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 현장 전문가들에게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실천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공동체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교육 연구의 시기별 분포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모교육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진 핵심 키워드와 연구 주제의 동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부모교육 주요 연구자의 분포, 피인용 빈도, 연구기관 분포는 어떠한가?

## II. 연구 방법

### 1. 자료 수집

데이터의 포괄성과 정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본 논문은 방대한 문헌과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는 WOS(web of science)를 샘플 데이터 소스로 활용하였다. ‘부모교육’을 주제로 WOS 플랫폼에서 문헌을 검색하여 문헌 추출 및 분석의 유효성을 확보하고, 분석 품질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데이터는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WOS CC)에서 수집되었으며,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 및 동료 검토 품질과 같은 엄격한 학술지 선정 메커니즘을 통해 문헌의 학문적 권위를 보장한다(Garfield, E., 1955; Mongeon, P. & Paul-Hus, A. 2016). WOS CC의 인용 데이터는 과학적 연구 평가 실무(Halevi, G., et al. 2017)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선정한 문헌 데이터는 학술적 정확성, 신뢰성, 그리고 대표성을 갖추고 있다. 문헌연구 대상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5년간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해당 시기가 부모교육 분야에서 독특한 시대적 의미와 연구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으로 최근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교육 생태계의 격변, 디지털 전환 가속화, 그리고 가정교육 정책의 집중적 조정이 맞물리며 부모교육 연구 패러다임의 구조적 변혁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기존 문헌과 비교할 때 최근 5년간의 연구는 기술 기반 양육 전략 혁신을 보다 정밀하게 포착하고 있다. 이 기간은 사회적 중대사가 가정교육에 미치는 지속적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신홍 학술 트렌드의 지식 진화 궤적을 선명하게 드러내어, 현대 부모교육의 복합적 역동성을 이해하는 데 시의적절하고 강한 연관성을 갖는 분석 틀을 제공한다. 먼저 WOS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WOS CC의 전체 문헌을 선택하고 주제 "parent education" OR "parental involvement" OR "family-school partnership" OR "parenting style" 검색 형식으로 검색을 진행하였다. 출판 연도는 최종 출판 연도 2020-2024년으로 설정하고 문헌 유형은 논문으로 선택한 결과 3,876편의 논문을 도출하였고 내용을 검토하여 <표 1>과 같이 부적합한 논문을 제외시킨 후 최종적으로 1,241편의 논문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1> 부모교육 교육 연구의 데이터 소스**

검색조건	검색내용과 결과
데이터베이스	WOS
검색주제	((TS=("parent education")) OR TS=("parental involvement")) OR TS=("family-school partnership")) OR TS=("parenting style")
선별범위기준	WOS CC
시간 범위	2020.01.01. ~ 2024.12.31
검색 시간	2025.04.13
검색결과(편)	1,241

## 2.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들은 WOS 웹 페이지(www.webofscience.com)가 제공하는 시각화 분석 도구와 CiteSpace 6.4.R1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CiteSpace는 학술 연구 및 정보 시각화를 위한 소프트웨어로, 문헌 계량 분석(Literature Quantitative Analysis)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다. 문헌 계량 분석 단계는 보통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정제, 키워드 추출, 지표 생성, 시각화, 분석 등으로 이루어진다. CiteSpace는 미국 드렉셀 대학교 Chaomei Chen 교수가 2004년에 개발한 시각적 연구 도구로, 논문 간의 인용 관계를 분석하여 논문의 영향력과 연구 동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연구자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그래프로 생성하여 협력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Chen, 2006). CiteSpace는 논문 키워드를 식별하고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기능 외에도 클러스터, 시간 그래프 분석, 키워드 및 버스트 키워드 분석, 인용 네트워크 분석, 공동 저자 네트워크 분석, 필터링 및 정렬 기능 등을 제공하여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따라 자료분석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교육 연구의 시기별 분포는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WOS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시각화 도구로 분석하였다. 둘째, 부모교육 연구 키워드별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CiteSpace의 클러스터 분석, 키워드 시간 그래프, 키워드 버스트 분석을 하였다. 클러스터 분석을 하기 전에 시간 범위를 2020-2024년으로 설정하고, 노드 유형에서 키워드 Top N을 100으로 설정하였다<sup>1)</sup>. 클러스터 방법은 대수 우도 추정법(LLR)으로, 관련 조정을 한 후 키워드 클러스터 네트워크를 얻었다. 다음은 키워드 시간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CiteSpace의 times slicing 기능을 이용하였다. 키워드 시간 그래프는 특정 연구 주제의 주요 추세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내의 연구 흐름을 보여준다. 각 클러스터는 공동 출현 네트워크 내의 키워드이며, 클러스터 번호의 숫자는 클러스터 내의 키워드 수와 반비례 관계에 있다. 키워드 클러스터의 구성수와 클러스터 밀도 값이 더 큰 경우, 이 분야의 연구 결과가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형성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완벽한 이론 체계가 이미 형성된 것을 어느 정도 나타낼 수 있다. 키워드의 급증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 버스트 기능을 사용하였다. times slicing을 통해 1년 간격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네트워크 노드 수를 제어하여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셋째, 부모교육 연구의 연구자별 분포,

1) Top N의 값은 각 시간 슬라이스에서 인용 빈도가 가장 높거나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K 표준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며, 각 표준은 여러 개의 제한된 노드를 포함할 수 있다. 임계치 C:(2, 2, 20)(타임 슬라이스 내 데이터의 출현 또는 인용빈도를 나타낸다), C:(4, 3, 20)(타임 슬라이스 내 데이터의 공히 횡수 또는 인용빈도를 나타낸다), CCV:(3, 3, 20)(데이터 간의 공동 인용률 또는 기여율을 나타낸다)

피인용 빈도, 연구 기관, 연구 국가별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CiteSpace를 이용하였다. 데이터 분석 시 times slicing 값을 1로 선택하여 1년마다 시간 간격으로 처리하고, 임계값은 기본 값을 선택하였다. 이는 단일 시간 파티션에서 임계값별로 네트워크 노드 수를 제어하여 임계값 조건을 만족시키는 인용문을 시각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III. 연구결과

#### 1. 부모교육 연구의 시기별 분포

부모교육 연구의 시간별 분포를 연구하기 위해 WOS 웹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시각적 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도출한 부모교육 연구의 연간 문헌 수 및 퍼센트는 <표 2>와 같다.

<표 2> 부모교육 연구 연간 문헌 수 및 퍼센트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문헌 수	298	251	272	230	190
비율(%)	24.01	20.23	21.92	18.53	15.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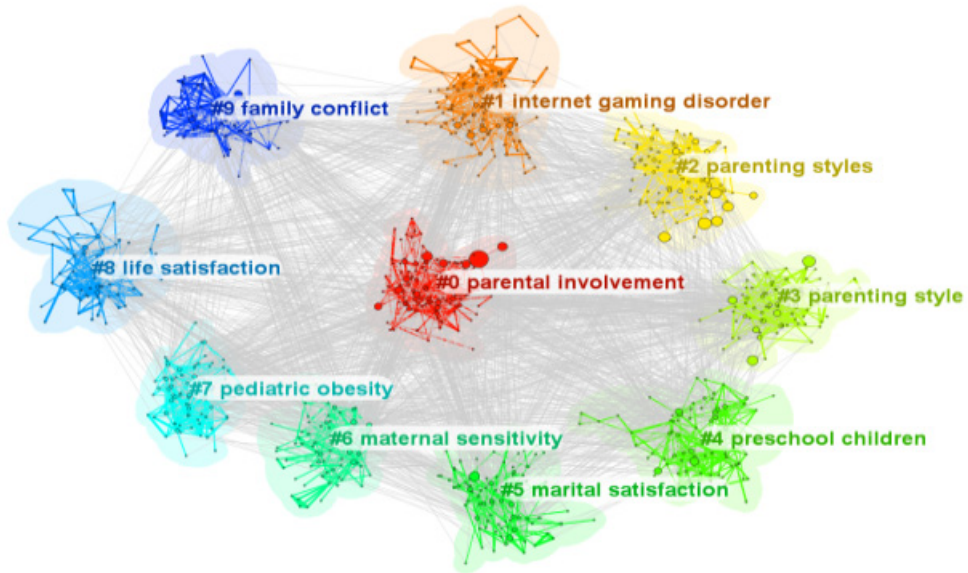
2020-2024년 ‘부모교육’ 연구의 문헌량 추세는 다음과 같다: 2020년은 298편으로 주로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양육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Spinelli, M., et al. (2021)과 Yang, Y., et al. (2022)은 팬데믹이 부모 참여도와 아동 정신건강에 미치는 즉각적 영향 규명으로 인해 긴급 연구가 활성화되었다고 보고하였다.

## 2. 부모교육 연구의 키워드 분포 결과

### 1) 키워드 클러스터 분석 결과

키워드 클러스터 분석 결과에 의하면 [그림 1]과 같이 노드(node)의 수는 각 키워드의 개수를 나타내고, 선의 수는 키워드 간의 연관성을 의미한다. 또한 그림의 각 클러스터에는 '#'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으며, 숫자가 작을수록 클러스터 크기가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분석 결과, 총 10개의 주요 클러스터가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클러스터 #0은 부모참여(Parental involvement), 클러스터 #1은 인터넷 게임 중독(Internet gaming disorder), 클러스터 #2는 양육 스타일(Parenting styles), 클러스터 #3은 양육 지원과 교육 현장(Parenting style), 클러스터 #4는 유아(Preschool children), 클러스터 #5는 결혼만족도(marital satisfaction), 클러스터 #6은 모성적 감수성(Maternal sensitivity), 클러스터 #7은 아동 비만(Pediatric obesity), 클러스터 #8은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클러스터 #9는 가족 갈등(family conflict)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 세계 연구자들이 부모교육 분야를 핵심 주제로 주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 키워드 클러스터 분석

<표 3>과 같이 클러스터 #0 부모 참여(Parental involvement)를 살펴보면, 키워드 119개가 포함되어 있으며, 동질성 지수는 0.768로 나타나 해당 클러스터에 속한 분석대상 간의 유사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한편, 평균 출판 연도는 2021년으로 확인되며, ‘부모 참여’를 주제로 한 연구가 2021년을 전후하여 가장 많이 발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 클러스터 주제 분석**

클러스터 번호	클러스터 키워드 수	동질성	평균 연도	주제 표시	대표적 키워드
#0	119	0.768	2021	부모참여 (Parental involvement)	parental involvement; academic achievement; academic performance ; parenting style; school readiness
#1	111	0.695	2021	인터넷 게임 중독 (Internet gaming disorder)	internet gaming disorder ; problematic internet use ; parental involvement; college students; internet addiction
#2	98	0.774	2021	양육 스타일 (Parenting styles)	parenting styles; parental involvement; young adults ; authoritative parenting style; authoritarian parenting
#3	86	0.725	2021	양육 지원과 교육 현장 (Parenting style)	parental involvement; parenting style; parental support; middle school ; covid-19
#4	82	0.731	2021	유아 (Preschool children)	preschool children; family socioeconomic status; aggressive behavior; ag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5	81	0.674	2021	결혼 만족도 (marital satisfaction)	marital satisfaction; gender; father involvement; maternal employment ; child development
#6	78	0.805	2021	모성적 감수성 (Maternal sensitivity)	parental involvement; maternal sensitivity; error-related negativity; latent profile analysis (lpa) ; mediating role
#7	76	0.809	2021	아동 비만 (Pediatric obesity)	pediatric obesity; social class; body mass index; physical activity; parental education
#8	69	0.77	2021	삶의 만족도 (Life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family caregiving); child abuse; moral identity; parental mediation
#9	64	0.754	2021	가족 갈등 (family conflict)	family conflict; callous-unemotional traits ; parental involvement; parenting style; parental warmth

고빈도 키워드 클러스터 분석 결과, 양육 연구는 다각화된 주제 영역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클러스터 #0부터 #3까지는 학업 성취에 대한 부모 참여 및 양육 스타일의 영향을 중심으로 양육 실천의 이론적 측면과 실제 적용 현장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한편, 클러스터 #4와 #7은 아동 행동에 미치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모성적 감수성의 기제를 탐색했으며, 클러스터 #5와 #9는 아동 발달에 대한 가족 만족도 및 갈등의 잠재적 작용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 양육 실천은 학문적 성과, 정신건강, 사회적 적응력 등 다차원적 영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특히 기술 접목이 급격히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윤리성과 실용성 간의 균형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2) 키워드 버스트 워드 분석

[그림 2]와 같이 CiteSpace를 활용하여 연구 대상 문헌에 나타난 단어나 구문의 빈도를 버스트 탐지(burst detection) 기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특정 시기에 빈도가 크게 변하는 단어, 즉 버스트 단어(burst terms)를 식별할 수 있으며, 이전 연구 중점과 현재 연구 중점의 차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 Top 9 Keywords with the Strongest Citation Bursts

Keywords	Year	Strength	Begin	End	2020 - 2024
trajectory	2020	2.79	2020	2021	
sample	2020	2.19	2020	2021	
youth sport	2020	1.98	2020	2021	
asian american	2020	1.87	2020	2021	
esteem	2020	1.83	2020	2021	
internet gaming disorder	2020	1.83	2020	2021	
exposure	2021	2.09	2021	2022	
victimization	2022	2.64	2022	2024	
sex differences	2022	2.11	2022	2024	

[그림 2] 9개의 버스트 단어

부모교육 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버스트니스(burstness) 기능을 통해 9개의 버스트 키워드

가 도출되었다.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키워드 뒤에 버스트 발생 기간이 있으며 빨간색 바는 해당 연도에, 키워드의 붉은색 바는 해당 시기에 키워드의 출현 빈도가 급격히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붉은색 바의 길이는 이러한 증가 현상이 지속된 기간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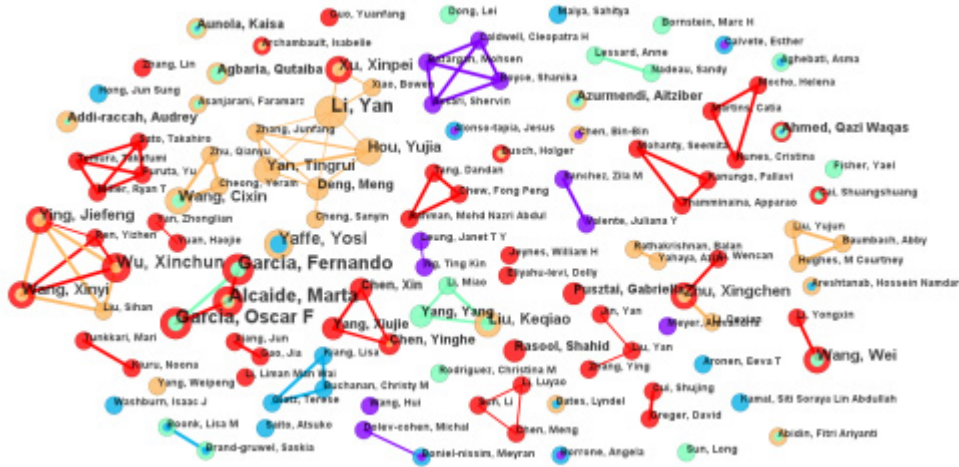
예를 들어, ‘trajectory’ 키워드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높은 빈도로 나타난 키워드이며 ‘victimization’과 ‘sex differences’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급증한 키워드로 확인된다. 한편, [그림 2]를 기반으로 키워드의 버스트 강도를 높은 순서로 나열하면 trajectory(경로), sample(표본 추출), youth sport(청소년 스포츠), asian american(아시아계 미국인), esteem(자존감), internet gaming disorder(인터넷 게임 중독), exposure(노출), victimization(피해), sex differences(성별 차이)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20-2024년 양육 연구 분야에서 trajectory(경로)와 sample(표본 추출)은 팬데믹 이후 기존 양육 모델에서 원격·디지털 양육으로의 전환과 함께 아시아계 미국인 (Asian American) 키워드를 통해 다문화 배경의 양육 방식 차이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증대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연구방법론의 혼합 설계가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터넷 게임 중독(Internet gaming disorder) 키워드를 통해 디지털 기술의 양육 현장 적용에서 나타나는 양면적 효과의 연구가 확대되고 있고 성별 차이(gender differences)를 통한 양육 실행 과정의 젠더 요인에 대한 체계적 분석 필요성 등의 연구가 증대되고 있는 주요 연구 동향이 도출되었다.

### 3. 부모교육 연구의 연구자별 분포, 피인용 빈도, 연구기관별 분포

#### 1) 부모교육 연구의 연구자별 분포

저자 간 협력 네트워크 및 주 연구자 간 공통 출현에 대해 분석하면, 저자별 연구의 특징을 파악하고 부모교육 연구에서 핵심 연구자를 도출할 수 있다. CiteSpace 6.4.R1의 ‘node type’에서 ‘author’를 설정하여 도출된 [그림 3]과 같은 저자 간 협력 네트워크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문 분야 내 연구자 간 협력 구조와 주 연구자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3] 공저자 군집분석

부모교육 연구의 주 연구자를 분석한 결과, <표 4>와 같이 전체 566명의 연구자 중 118명이 2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주 연구자로 분류된다. 이 중 Oscar F Garcia, Marta Alcaide, Fernando Garcia, Yan Li는 각각 6편, Xinchun Wu, Yosi Yaffe는 각각 5편을 발표하였다.

협력 네트워크 분석 결과, 부모교육 분야 연구자들은 주로 개별 연구를 수행하며 권위적 중심축이 부족하고, 연구자 간 교류 및 협력이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일부 저자 그룹에서는 뚜렷한 협력 관계가 형성되었는데, 특히 Oscar F Garcia, Marta Alcaide, Fernando Garcia 등으로 구성된 그룹과 Xinchun Wu, Jiefeng Ying, Xinyi Wang, Yizhen Ren, Sihan Liu등이 형성한 그룹이 두드러진다.

또한 [그림 3]에서 해당 연구자들의 네트워크 외곽이 적색으로 표시된 것은 최근에도 활발한 연구 활동과 논문 산출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4> 주 연구자 군집분석 Top 15

No.	Author	Count	Year	Institution
1	Oscar F Garcia	6	2022	Univ Valencia
2	Marta Alcaide	6	2022	Univ Valencia
3	Fernando Garcia	6	2022	Univ Valencia
4	Yan Li	6	2023	Shanghai Normal Univ
5	Xinchun Wu	5	2023	Beijing Normal Univ
6	Yosi Yaffe	5	2021	Tel Hai Acad Coll
7	Xingchen Zhu	4	2023	Liaoning Normal Univ
8	Cixin Wang	4	2022	Univ Maryland

9	Yujia Hou	4	2023	Shanghai Normal Univ
10	Xinpei Xu	4	2023	Shanghai Normal Univ
11	Jiefeng Ying	4	2023	Beijing Normal Univ
12	Wei Wang	4	2022	Henan Univ
13	Tingrui Yan	4	2023	East China Normal Univ
14	Keqiao Liu	4	2022	Jiangxi Univ Finance & Econ
15	Xinyi Wang	4	2023	Beijing Normal Univ

## 2) 부모교육 연구의 피인용 빈도

피인용 빈도는 특정 연구에 대한 학문적 신뢰도와 연구자의 영향력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학문 분야 내 지식 구조와 연구 흐름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CiteSpace 6.4.R1의 ‘node type’에서 ‘Reference’를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도출된 연구 대상 문헌은 1,241편이며, 피인용 수 상위 10위 문헌은 <표 5>와 같다. 이들은 부모교육 연구의 중요한 성과로, 지식 기초를 다지고 부모교육의 후속연구의 연구방향을 제공하였다.

Boonk, L., et al.(2018)의 『A re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involvement indicators and academic achievement』은 해당 분야에서 가장 높은 인용빈도를 기록한 문헌으로, 부모 참여가 아동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정립하였다. 상세한 문헌 고찰을 통해 정서적 지원, 학업 감독 등 다양한 양육 지표가 학업 성과를 예측하는 메커니즘을 체계화함으로써 후속 연구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Barger, M. M., et al.(2019)의 『The Relation Between Parents’ Involvement in Children’s Schooling and Children’s Adjustment: A Meta-Analysis』은 인용 빈도 2위를 기록한 문헌으로, 부모참여가 아동의 사회적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메타분석 연구이다. 연구 결과, 부모의 적극적 참여는 아동의 심리적·행동적 발달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며, 이는 교육 현장의 실천 지침 수립에 강력한 근거를 제공하였다.

Pinquart, M., et al.(2018)의 『Do the Associations of Parenting Styles With Behavior Problems and Academic Achievement Vary by Culture? Results From a Meta-Analysis』은 인용빈도 3위를 기록한 문헌으로, 개정된 메타분석을 통해 정서적 온기와 통제적 양육 같은 양육 차원이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와 갖는 연관성을 탐구하였다. 연구 결과, 양육 스타일과 아동 행동문제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부모교육 개입 프로그램 개발에 핵심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표 5> 피인용 빈도 Top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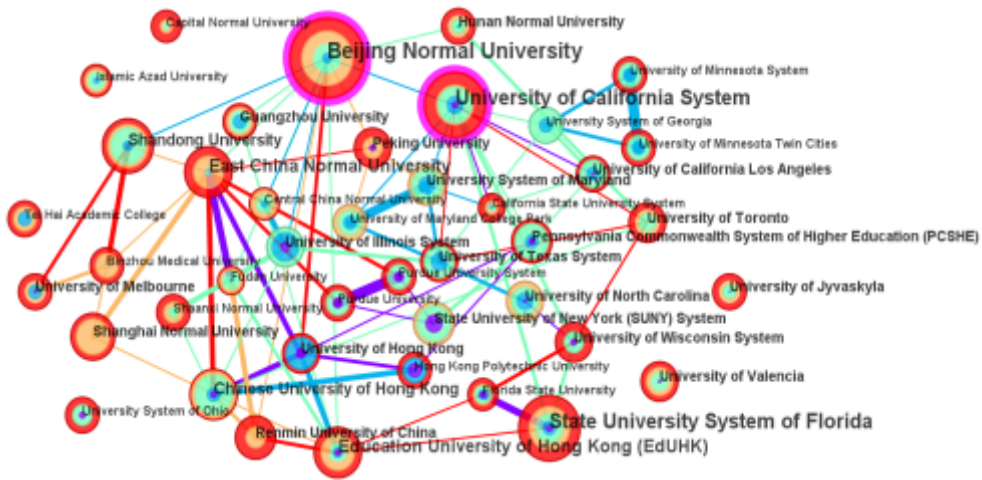
번호	문헌 제목	저자 (Year)	인용 빈도
1	A re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involvement indicators and academic achievement	Boonk, L., et al. (2018)	52
2	The Relation Between Parents' Involvement in Children's Schooling and Children's Adjustment: A Meta-Analysis	Barger, M. M., et al. (2019)	48
3	Do the Associations of Parenting Styles With Behavior Problems and Academic Achievement Vary by Culture? Results From a Meta-Analysis	Pinquart, M., et al. (2018)	38
4	Parenting Styles: A Closer Look at a Well-Known Concept	Kuppens, S., et al. (2019)	29
5	Associations of Parenting Dimensions and Styles With Externalizing Problem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 Updated Meta-Analysis	Pinquart, M.(2017)	24
6	One size fits all? What counts as quality practice in (reflexive) thematic analysis?	Braun V., et al. (2021)	24
7	Academic Benefits from Parental Involvement are Stratified by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A Meta-analysis	Tan, C.Y., et al. (2020)	24
8	A Third Emerging Stage for the Current Digital Society? Optimal Parenting Styles in Spain,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Brazil	Garcia, F., et al. (2019)	23
9	Associations of Parenting Styles with Self-Esteem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Meta-Analysis	Pinquart, M., et al. (2019)	23
10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Hayes A.F. (2018)	22

### 3) 부모교육 연구의 연구기관별 분포

연구기관 협력 네트워크는 부모교육 분야의 학문적 관계 구조를 파악하고, 각 기관의 연구 영향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CiteSpace 6.4.R1의 'node type'을 'Institution'으로 설정하여 [그림 4]와 같은 연구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전 세계의 부모교육 연구기관 간의 협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모교육 연구는 대학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대학의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 역량이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2020년 베이징 사범대학(Beijing Normal University)은 부모교육 연구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연구 활동을 보였으며, 이는 해당 기관의

연구 성과가 학술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학문적 가치를 입증한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시스템(University of California, UC System)과 플로리다 주립대학 시스템(State University System of Florida)이 그 뒤를 이어 2020년 각각 영향력 높은 양육 관련 연구 다수를 발표하였고 화둥 사범대학(East China Normal University)과 홍콩 교육대학(Education University of Hong Kong, EdUHK) 역시 2020년 양육 연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기록하며 정책 수립, 실천 적용, 학계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4] 연구기관의 군집분석

특히 상하이 사범대학(Shanghai Normal University)은 2023년 양육 연구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으며, 논문 발표 수의 급증은 해당 분야의 신규 연구 동향과 잠재적 발전 방향을 시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관들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양육 연구의 발전 추세와 지역별 영향력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부모교육 연구의 주요 연구기관은 <표 6>과 같다.

<표 6> 연구기관 군집분석 Top 15

No.	Institutions	Count	Year
1	Beijing Normal University	39	2020
2	State University System of Florida	26	2020
3	University of California System	25	2020

4	Education University of Hong Kong (EdUHK)	19	2020
5	East China Normal University	18	2020
6	Shandong University	15	2021
7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14	2020
8	Pennsylvania Commonwealth System of Higher Education (PCSHE)	12	2020
9	Shanghai Normal University	12	2023
10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11	2020
11	University of Illinois System	11	2020
12	University of Valencia	11	2020
13	Renmin University of China	10	2023
14	University of Texas System	10	2021
15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 System	10	2020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의 국내외 부모교육 연구 동향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WOS CC)에 등재된 1,241편의 문헌을 대상으로 CiteSpace 시각화 분석을 수행하였다.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 특히 COVID-19 팬데믹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부모교육 연구가 어떠한 경로로 진화해 왔는지를 명확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첫째, 부모교육 연구의 시기별 문헌 분포를 분석한 결과, 2020년에 문헌 수가 298편으로 가장 많았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원격 학습 확대와 가정 양육의 중요성 증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부모교육에 대한 긴급하고 광범위한 연구 수요가 발생했음을 시사하며, 팬데믹 상황은 부모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생겼고 이는 즉각적인 학술 연구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21년에는 문헌 수가 다소 감소하며 학계의 연구 초점이 점차 심층적인 메커니즘 탐구, 예를 들면, 부모교육의 매개 효과나 디지털 양육 기술의 윤리적 성찰 등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팬데믹의 초기 대응 단계를 넘어,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모교육의 본질과 영향을 탐색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후 2022년에는 AI 양육 도구 개발, 신경 메커니즘 연구 돌파 등 새로운 기술 및 학제적 접근법이 도입되면서 연구 문헌 수가 다시 회복세를 보였다. 이러한 시기별 문헌 수의 변화는 부모교육 연구가 단순히 양적 증가를 넘어 사회적 변화와 학문적 패러다임 전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질적 심화를 추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키워드 버스트 워드 분석 결과, trajectory(경로), sample(표본 추출), youth sport(청소년 스포츠), asian american(아시아계 미국인), esteem(자존감), internet gaming disorder(인터넷 게임 중독), exposure(노출), victimization(피해), sex differences(성별 차이)와 같은 핵심적인 키워드들이 도출되었다. 이는 최근 부모교육 연구의 주요 관심 영역과 학문적 흐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trajectory와 sample은 팬데믹 이후 디지털·원격 양육 환경으로의 전환과 함께 연구 방법론의 다변화 및 혼합연구 설계의 확산을 시사한다. 또한 Asian American 키워드는 다문화적 맥락에서의 양육 방식 차이에 대한 관심 증대를 보여주며, 글로벌 사회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한 부모교육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더불어 internet gaming disorder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양육이 갖는 양면적 특성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부각시키며, sex differences는 양육 과정에서의 젠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셋째, 고빈도 키워드 클러스터 분석 결과, 부모교육 연구가 학업 성취에 대한 부모 참여 및 양육 스타일의 영향, 아동 행동에 미치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모성적 감수성, 아동 발달에 대한 가족 만족도 및 갈등의 작용 메커니즘 등 다각화된 주제 영역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부모교육이 아동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기능과 안녕에 총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클러스터 분석은 양육 실천이 학문적 성과, 정신건강, 사회적 적응력 등 다차원적 영역에서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며, 특히 기술 접목이 가속화되는 현 상황에서 윤리성과 실용성의 균형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되며, 이들 분석 결과는 부모교육 연구가 매우 역동적이며,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부모교육 연구의 주요 저자들은 Oscar F Garcia, Marta Alcaide 등 특정 그룹을 중심으로 활발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며 논문 산출을 지속하고 있다. 연구자 간 전반적인 교류와 협력은 제한적이지만, 핵심 연구자들의 역할은 중요하게 나타났다. 피인용 빈도가 높은 문헌들은 주로 부모 참여가 아동의 학업 성취 및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양육 스타일과 행동 문제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으며, 이들 문헌은 부모교육 연구의 이론적 기반을 다지고 후속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기관별 분포 분석은 부모교육 분야의 학문적 영향력과 협력 지도를 파악하는 데 기여하고 향후 기관 간 협력 증진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교육 연구의 질적 성장과 실질적인 사회적 기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팬데믹 이후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온라인 양육 및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기술 융합 양육 전략 개발 및 효과성 검증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질과 양에 대한 종단연구를 통해 그 장기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디지털 양육의 윤리적 문제와 부작용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도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고려하여 문화적 이질성을 반영한 부모교육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단순히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특정 문화권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적인 질적 연구와 함께 다문화 가정이 겪는 실제적인 양육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맞춤형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 제언이 시급하다. 셋째, 청소년 정신건강, 특히 인터넷 게임 중독과 같은 디지털 환경 관련 문제에 대한 부모교육의 역할과 개입 방안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인지행동치료, 가족치료 등 다양한 상담 이론을 부모교육에 접목하여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실용적인 접근법을 모색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넷째, 양육 실천의 성별 차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다 포괄적이고 젠더 민감성을 반영한 부모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성별에 따른 양육 부담의 차이, 양육 경험의 다양성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모든 부모가 균형 있고 주체적인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부모교육 연구의 학제적 접근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을 넘어 의학, 공학, 미디어학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 연구를 통해 부모교육의 범위를 확장하고, 복합적인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통합적인 연구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는 지난 5년간의 부모교육 연구 동향을 CiteSpace를 활용한 시각화 분석으로 조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높으나 WOS 데이터베이스에 한정된 자료 수집, 특정 키워드를 통한 문헌 선정이라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국내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질적 연구 방법론을 병행하여 부모교육의 심층적 현상을 탐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부모교육 연구가 더욱 발전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건강한 가족 기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김기주(2024). 자폐스펙트럼장애아에 대한 마음읽기 부모교육프로그램의 효과. **언어치료연구**, 33(1), 47-55.

김민경(2004). 유아 성학대 예방에 대한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열린유아교육연구**, 9(3), 195-217.

김민희(2022). 영유아 부모교육이론과 연구동향을 통해 본 방향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7), 665-683.

김영환·이승민·강두봉(2017). 부모교육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 **교육문화연구**, 23(3), 75-94.

김정현·조한익(2020). 품행장애 청소년의 부모교육적 상담 사례연구: 부모양육태도 변화를 중심으로. **질적탐구**, 6(2), 403-447.

김혜경(2014). 부모교육프로그램 및 개발 연구의 동향 분석. **아동과권리**, 18(3), 331-366.

나지영(2016).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한 부모교육에 관한 문헌 고찰. **언어치료연구**, 25(4), 49-66.

도미향·김은영(2024). 부모와 자녀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위한 부모코칭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부모교육연구**, 21(1), 29-47.

박성의·황희탁(2019).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역량강화 부모코칭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부모교육연구**, 16(1), 45-67.

박태경·박재연(2017). 발달장애아동부모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양육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 **이론과 실천**, 18(2), 1-24.

안명현·한유진(2013). 부모교육으로서 부모미술놀이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가족과 가족치료**, 21(3), 331-349.

오은영·최새은(2019). 학교부적응 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 수업 적용 사례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31(3), 117-134.

이경주·조영애·염형준(2022).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부모교육 연구동향 분석. **부부가족상담연구**, 16(4), 75-88.

이미나·김의구(2017). 예비부모교육 연구동향 분석.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지**, 7(4), 561-568.

이완희·최양미(2009). 영유아 부모코칭프로그램의 연구동향 분석: 2000년~2009년. **열린부모교육연구**, 1(2), 87-109.

조유진(2013). 어머니의 자녀 미래 기대, 양육스트레스가 부모역할 인식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석사학위논문.

최경혜·한유진(2020).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국내 부모교육 관련 학술지 연구동향 분석. **놀이치료연구**, 24(1), 87-101.

최정윤, 방은숙, 전해정, 황성숙, 김성봉(2025).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부모교육의 연구동향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6(4), 79-88.

황민선(2015).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부모교육 연구 동향. **부모교육연구**, 22(1), 111-138.

- Barger, M. M., Kim, E. M., Kuncel, N. R., & Pomerantz, E. M. (2019). The relation between parents' involvement in children's schooling and children's adjustment: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45*(9), 855.
- Boonk, L., Gijssels, H. J., Ritzen, H., & Brand-Gruwel, S. (2018). A re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involvement indicators and academic achievement. *Educational research review, 24*, 10-30.
- Chen, C. (2006). CiteSpace II: detecting and visualizing emerging trends and transient patterns in scientific literature.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7*(3), 359-377.
- Garfield, E. (1955). Citation indexes for science: A new dimension in documentation through association of ideas. *Science, 122*(3159), 108-111.
- Halevi, G., Moed, H., & Bar-Ilan, J. (2017). Suitability of Google Scholar as a source of scientific information and as a source of data for scientific evaluation—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informetrics, 11*(3), 823-834.
- Mongeon, P., & Paul-Hus, A. (2016). The journal coverage of Web of Science and Scopus: a comparative analysis. *Scientometrics, 106*, 213-228.
- Pinquart, M., & Kauser, R. (2018). Do the associations of parenting styles with behavior problems and academic achievement vary by culture? Results from a meta-analysis. *Cultural Diversity & Ethnic Minority Psychology, 24*(1), 75.
- Spinelli, M., Lionetti, F., Setti, A., & Fasolo, M. (2021). Parenting stress during the COVID 19 outbreak: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risk factors and implications for children emotion regulation. *Family process, 60*(2), 639-653.

Abstract

# Analysis of Parental Education Research Trends (2020–2024) – A CiteSpace Visualization Study –

Si Shen\* · Chung, Hee-Jung\*\*

This study aimed to comprehensively analyze trends in parenting education research over the recent five years (2020–2024) to explore directions for academic development and future research topics. For this purpose, a total of 1241 relevant articles were collected from the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WOS CC) database, utilizing keywords such as “parent education”, “parental involvement”, “family–school partnership”, and “parenting style”. The collected data were subjected to bibliometric analysis and visualization using CiteSpace 6.4.R1, performing analyses of annual publication distribution, keyword cluster analysis, and keyword burst analysis. The analysis revealed that parenting education research shifted its focus from an initial surge in emergency parenting studies due to the COVID–19 pandemic in 2020 to an in–depth exploration of mechanisms and ethical considerations of digital parenting technologies. Based on these analyses,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technology–converged parenting strategies, multicultural parenting research, and parenting education that addresses adolescent mental health and gender sensitivity. It also anticipates that fostering interdisciplinary research will drive qualitative growth and practical social contributions in the field of parenting education.

**Keywords** : Parenting Education, Research Trends, CiteSpace, Visualization Analysis, Shifts in Parenting Paradigm

---

\* Doctoral Candidate in Education, Baekseok University

\*\*Professor, Coaching Psychology, GraduateSchool of Education, BaekSeok University